

2022년 신년사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연구원 가족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이 깃들고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0년 연초부터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많은 변화와 어려움 속에 작년 한 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여러분 모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연구원이 코로나19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은 데 대해 특별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도하는 중에도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인내와 지혜로 금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연구원은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준비되어있는 연구원으로서의 모습을 다양한 연구과제 수행, TF 및 연구단 운영, 이슈페이퍼 발간, 학술행사 개최, 정부 및

국회와 다양한 정책토론회 진행, 각종 온라인 활동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청와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및 민간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국정연구기관 본연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연구원 내부적으로는 조직개편과 업무방식의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부서장이 경영전략회의에 참여하여 연구원의 현재와 미래를 조직구성원이 함께 디자인하는 문화를 만들었고, 부서 칸막이를 뛰어넘는 융합적 연구단을 운영하여 복잡한 농정이슈에 긴밀히 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KREI 이야기'를 신설하여 연구원 내부에 소통하는 분위기가 집단지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해준 연구원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우리 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연구원 가족 여러분과 공유하며 새해의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농촌 현장에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문제, 농지 소유권과

세대간 이용 문제, 농촌공간계획의 제도화 문제, 지속가능한 축산 시스템의 구축, 선택형직불제 확대와 농업인의 책임 강화 등과 같이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정개혁과 여러 난제 해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각자의 개인적 연구 관심과 개별화된 연구도 중요하지만, 연구원 차원에서 사회 전환기에 우리 농업·농촌·식품산업에 대한 의제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미래를 설계해 갈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연구부서 외에도 ‘농식품가치사슬연구단’, ‘평화신남방신북방연구단’, ‘푸드플랜연구단’,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 ‘중장기농정의제연구단’, ‘농업·농촌탄소중립연구단’ 등을 운영하였고, 올해는 기존 연구단 일부를 개편하면서 ‘먹거리순환체계연구단’과 ‘KASMO응용개발연구단’을 새롭게 조직하였습니다. 정책연구부서와 연구단이 집단지성의 발현을 통해 농정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와 제도의 변화에 맞춰 연구원의 일하는 방식도 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각의 부서와 구성원에게 적절한 업무와 역할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지난해에 연구원 조직

개편을 단행했으며, 특히 정책지원부서의 전문전담인력 활용을 확대하여 해당 업무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부서 업무조정과 연구인력 재배치를 통해 정책연구인력의 실질적 보강과 정책연구부서의 연구역량 강화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역량도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미래를 그려내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원’, ‘필요한 연구를 깊이 있고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연구원’,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사회에 기여하는 연구원’을 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사회적 공기(公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처음 목표했던 경영혁신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시한 연구원의 방향성이 앞으로도 연구원이 지속해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연구원의 주인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새해에도 연구원이 국민에게 필요한 연구기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며 새롭게 나아갑시다.

연구원 가족 여러분! 2022년 트렌드를 예측한 단어로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란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

신으로부터 기인하는 삶의 기쁨이라는 뜻으로 건강관리도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한다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단어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나와 가족이 모두 건강하다면 긍정의 에너지가 연구원 전체로 확산되고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이 지켜지고, 개개인의 보람과 긍지를 연구원에서 찾고, 각자의 성장이 연구원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